

‘영원한 산타 리베로’ 흥명보

16년 이어온 자선경기 올해가 마지막 그간 모인 22억원...모두 이웃 돕기에 체육계 사회공헌문화 자리잡아 뿌듯 “이젠 전면에 나서기보다 뒤에서 응원” 유소년축구 발전 위한 자선활동은 꼭



흥명보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는 2003년부터 꾸준히 자선경기를 개최하고 있다. 흥 전무는 이제 단순한 자선경기를 넘어 사회에 기여할 또 다른 방법을 골몰히 찾고 있다. 전면에서 한 발 물러나 그 방법을 실행하겠다는 각오다. 스포츠동아DB

흥명보(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가 처음 자선경기를 가슴에 새긴 때는 2003년 여름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감동을 뒤로한 채 이듬해 미국으로 건너가 LA 갤럭시에서 뛰던 시절, 미국 스포츠계의 기부문화를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그곳에선 스포츠 스타들의 사회공헌활동이 자연스럽고, 또 당연했다.

반면 우리에게 기부는 아직은 생소했다. 그러던 차에 미국에서 한국의 소아암 어린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결심을 굳혔다. 축구를 통해서 받은 사랑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생각과 함께 소아암 어린이를 돕기 위한 자선행사를 추진했다. 흥명보장학재단의 자선경기는 그렇게 탄생했다.

그 해 연말 열린 첫 행사에 40여명의 선수들이 산타 복장을 하고 녹색 그라운드를 수놓았던 장면은 지금도 생생하다. 이후 자선경기는 단 한번도 쉬지 않고 달려왔다. 스포츠복지단체와 축구 유망주,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자선경기는

국내 기부문화의 대명사처럼 자리 잡았다. 축구선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의 선수와 연예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점도 의미가 크다. 2010년 하프타임 이벤트로 열린 성탄캐럴 많이 부르기 행사에는 총 1만 5111명이 참가해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동안 조성된 기금만도 22억원이 넘는다. 모두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됐다. 청년 실업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됐다. ‘Share The Dream Football Match’로 명명된 자선경기 덕분에 국내 스포츠계에도 기부 문화가 널리 퍼졌다. 흥명보는 200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객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됐는데, 스포츠 선수 출신으로는 처음이다.

16년째를 맞는 올해도 자선경기는 변함 없이 열린다. 22일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이벤트는 K리그 울스타와 2002년 레드들이 나서 팬들과 즐거움을 나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이 마지막 자선경기다. 흥명보는 “처음 행사를 준비하고 시작했을 때와는 다르게 자선에 대한

선수들의 인식과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실제로 여러 선수들이 본인의 이름을 건 자선행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한 발 뒤에서 후배들을 응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자신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아울러 우리 체육인들이 자연스럽게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는 점을 뿌듯해했다.

하지만 흥명보가 자선을 그만둔다는 의미는 아니다. 선행의 방식이 바뀔 뿐이다. 그는 “자선경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 않 장학금 수여식과 수비수캠프, W.I.S.E 캠페인 등 유소년축구발전을 위한 기존의 활동과 함께 또 다른 행사를 통해 계속해서 자선활동을 이어갈 생각이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초심으로 돌아간다. 15년 전 처음 자선경기를 마련했을 때처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만한 일을 찾는 중이다. 나눔을 확대 재생산하겠다는 그의 약속에 또 다른 희망을 걸어본다.

전문기자 choing2@donga.com·체육학 박사



강등 위기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FC서울이 전력 재편에 시동을 걸었다. 그 시작은 외국인 선수 오스마르의 복귀였다. 올 시즌 일본 세레소 오사카로 임대된 오스마르는 FC서울과 3년 재계약에 합의했다. 스포츠동아DB

오스마르 임대 복귀 서울의 부활 이끌까

3년 재계약...FC서울, 전력 재편 박차

FC서울은 18일 외국인선수 오스마르의 복귀를 공식 발표했다. 올해 세레소 오사카(일본)로 임대된 수비형 미드필더 오스마르는 서울과 3년 재계약을 맺었다. 그는 내년부터 다시 K리그에서 활약하게 됐다. 2016년 서울에서 외국인선수로 처음으로 주장을 맡았을 정도로 ‘로열티’가 강한 선수다. 최용수 감독과도 오랜 기간 호흡을 이룬 바 있다. 오스마르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유니폼을 입고 142경기에 출전해 13골·5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오스마르의 복귀를 시작으로 서울은 전력 재편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쿼터로 공격형 미드필더 알리바예프(우즈베키스탄)를 선발한 서울은 나머지 외국인선수 두 자리를 공격 쪽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은 올 시즌 K리그1에서 38경기를 치러 40골을 넣는데 그쳤다. 이는 K리그1 12개 구단 가운데 최저득점이다. 내년 시즌 반등을 위해서는 공격력 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외국인선수의 전면 교체도 고려하고 있다. 서울 부임 이후 기존 외국인선수 활용을 최소화한 최 감독이 새 얼굴을 원하고 있는 듯 하다.

이러한 가운데 최 감독은 휴식을 취하며 내년 구상 중이다. 최 감독은 젊은 선수들 위주의 빠르고, 역동적인 축구를 펼치겠다는 기본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국내선수들의 경우 즉시 전력감을 대거 영입하는 방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구단 내 젊은 선수들을 집중 테스트해 경쟁시키고, 이를 통해 스피드를 활용하면서도 많이 뛰는 축구로 팀의 경쟁력을 되살리는 방법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내년 1월 2일부터 새 시즌을 위한 훈련을 시작한다. 팜에서 1차 전지훈련을 통해 몸을 만들고, 일본 가고시마에서 연습경기 위주의 2차 전지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최용수 기자 gtyong@donga.com



황인범이 무릎 부상을 입고 19일 축구대표팀 훈련에 합류한다. 내년 1월 아시안컵을 앞두고 굳은 의지를 드러낸 그는 “한국 축구는 이제 시작이라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스포츠동아DB

황인범, 벤투호 필드훈련 합류 “중양이든 공격형이든 맡겨주오”

“남태희 형 대신하긴 쉽지 않지만 아시안컵 나간다면 최선 다할 것”

한국축구대표팀은 내년 1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 대비해 지난 11일부터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소집 훈련을 펼치고 있다.

파울루 벤투 감독(49·포르투갈)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 보강이 필요하다. 벤투 감독 체제에서 두각을 나타낸 공격형 미드필더 남태희(27·알두하일)가 무릎십자인대 파열로 전력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중양미드필더와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황인범(22·대전시티즌)은 남태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자원 중 한명이다. 그는 왼쪽 무릎 내측 인대가 좋지 않아 축구대표팀의 본 훈련에는 참가하지 못한 채 재활과 회복 위주로 훈련을 해왔다. 18일 울산에서 취재된 앞에 선 그는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11월 호주 원정 평가전)에서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경기가 끝날 무렵 무릎을 약간 다쳤다”며 “지금은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19일부터는

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축구대표팀은 20일 23세이하(U-23) 대표팀과의 연습경기 후 아시안컵에 출전할 최종 2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명단 포함되는 것이 황인범의 1차 목표다. 그는 “일단 최종명단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남)태희 형의 역할을 대신하기는 쉽지 않다. 미드필더와 공격수 간의 볼을 연결하고 팀포를 살리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 아시안컵에 나간다면 중양이든, 공격형 미드필더든 포지션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험이 있는 그는 아시안컵에 대한 마음가짐도 각별했다. 황인범은 “다들 아시안게임은 쉬울 것이라고 했지만, 정말 힘들게 금메달을 땀다. 아시안컵은 더 어렵고 큰 대회”며 “대회를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아시안게임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수들 모두 진지한 자세로 훈련하고 있다. 한국 축구는 이제 시작이라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굳은 마음가짐을 밝혔다.

울산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베트남 ‘박항서호’의 다음 목표는?

아시안컵 역대 최고 8강 이상 기대 박항서, 스즈키컵 최우수 감독 선정

베트남의 ‘축구 영웅’ 박항서(59) 감독이 일군 신드롬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여러 외신들이 박 감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박항서 매직’의 열기를 이어가는 형국이다.

폭스스포츠 아시아는 18일(한국시간) 베트남을 ‘2018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 정상에 올려놓은 박 감독을 스즈키컵 최우수 사령관으로 선정했다. 이 때

체는 3-4-1-2 포메이션으로 구성된 스즈키컵 베스트 11과 포지션별 7명의 서브 명단도 발표했다. 박 감독은 대회를 빛낸 최우수 사령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동시에 베트남 소속선수 5명은 베스트11에 포함되면서 출전국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1월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부터 8월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이달 스즈키컵까지 쉬지 않고 달렸던 ‘박항서호’ 베트남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첫째 목표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최고 성적 돌파다. 현

재 FIFA 랭킹 100위에 올라있는 베트남의 역대 최고 순위는 84위(1998년 9월)다. 현재 16계단이 남은 상태인데, 내년 1월 열리는 AFC 아시안컵과 이어질 A매치 결과에 따라 자국 신기록 작성도 가능하다. 이미 박 감독 부임 이후 FIFA 랭킹이 121위에서 100위로 가파르게 오른 만큼 베트남 축구계는 현재 자신감에 차있는 상태다.

AFC 아시안컵 최고 성적 역시 갈아 치우겠다는 각오다. 베트남은 2007년 8강 진출이 역대 대회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표(베트남 공화국 시절 1956년과 1960년 4강 진출)였다. 본선 같은 조인 중동 3개국(이란·이라크·예멘)의 벽만 넘는다면 8강 너머도 넘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베트남 축구대표팀 박항서 감독은 폭스스포츠 아시아 측은 2018 AFF 스즈키컵 베스트 팀 사령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박 감독은 이제 내년 1월 열리는 AFC 아시안컵에서 베트남 역대 최고 성적에 도전한다. 뉴스